

고려 태조 왕건의 일모산성전투와 공직의 역할

김 명 진*

1. 머리글
2. 일모산성의 역사·지리적 검토
3. 공직의 고려 귀부와 일모산성
4. 일모산성전투의 전개과정
5. 맺음글

1. 머리글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수행한 통일전쟁의 여러 전투 중에서 그간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한 전투가 일모산성전투(一牟山城戰鬪)였다. 일모산성은 현 양성산성(충북 청원군 문의면)으로 비정되고 있다. 본래 왕건은 태봉의 궁예 밑에서 장수로서 활약하였다. 그러나 궁예의 실정으로 민심이 이반되자 918년 6월에 궁예를 몰아내고 등극하였다. 국호를 고려라 정하고 민심을 추스르면서 통일전쟁을 수행하였다. 마침내 그는 936년 9월에 통일의 완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왕건이 승리로 마무리한 고려 통일전쟁의 전쟁터는 크게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충청지역, 나주서남해지역, 경상지역, 한강이북지역이 그것이다.¹⁾ 이 중 충청지역에서 행해졌던 여러 전투 가운데서 주요한 전투 중 하나가 일모산성전투였다. 그런데 932년 6월에 후백제(당시 이름은 백제) 견훤의 아래에 있었던 매곡산성(昧谷山城, 충북 보은군 회인면)의 성주(城主) 공직(龔直)이 고려로 귀부하였다. 매곡산성은 일모산성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 공직의 고려 귀부와 일모산성전투와의 연관성은 궁금한 문제이다.

왕건의 통일전쟁 전체에 대한 전쟁사 측면에서의 접근은 최근에 몇 개의 성과가 연속되었다.²⁾ 그러나 일모산성전투는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하였다. 소략한 사료와 주요한 전투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모산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매곡산성의 현황과 그 역사지리적 배경에 관한 검토가 있었다.³⁾ 더불어 공직에 관한 연구 성과는 일모산성의 주변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⁴⁾ 고고학적인 성과로서 일모산성(양성산성)과 매곡산성에 관한 보고서도 간행되어 참고 된다.⁵⁾

본고에서는 일모산성전투에 대해서 몇 가지 해명을 해보려고 한다. 먼저 일모산성전투 이전에 일모산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료에 나타나는지와

1) '충청'과 '경상'이라는 명칭은 원래 고려 통일 이후에 생긴 것이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사용하려 한다.

2) 이 시기 전쟁을 왕건의 입장에서 서술한 연구 - 류영철, 『高麗와 後百濟의 爭霸過程 研究』, 영남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1997;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경인문화사, 2005; 김명진, 『高麗 太祖 王建의 統一戰爭 研究』, 경북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2009. 궁예의 입장에서 서술한 연구 - 신성재, 『弓裔政權의 軍事政策과 後三國戰爭의 전개』, 연세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2006. 견훤의 입장에서 서술한 연구 - 문안식, 『후백제 전쟁사 연구』, 해안, 2008.

3) 성주탁·차용걸, 『百濟未谷縣과 昧谷山城의 歷史地理的 管見』, 『삼불 김원룡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II, 일지사, 1987.

4) 신호철, 『新羅末·高麗初 昧谷城(懷仁)將軍 龔直 - 지방호족 존재양태의 일단 -』 『湖西文化研究』 10,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92.

5)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淸原 壤城山城』(중원문화연구소총서 제23책), 2001;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淸原 壤城山城 圓池 發掘調査 報告書』(중원문화연구소총서 제49책), 2005;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報恩 昧谷山城 地表調査 報告書』(중원문화연구소총서 제2책), 1998.

일모산성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시 주변상황을 알아보려면 932년의 일모산성전투에 큰 영향을 미친 고려로 귀부한 매곡산성의 성주 공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모산성전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전말을 밝혀보고자 한다. 전투가 종결된 후에 왕건의 충청지역 통일전쟁에 대한 행보와의 연관성도 고민해 보았다.

이러한 과제를 밝혀내기 위해 소략한 관련 사료를 모아서 정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작은 부분도 소중히 선택하면서 가려졌던 왕건의 통일전쟁의 한 조각을 찾아보려고 한다. 사료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현장답사를 통해서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일모산성전투의 숨겨진 사실을 밝혀낸다면 왕건의 통일전쟁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바램이 이 글을 쓰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2. 일모산성의 역사·지리적 검토

고려 태조 왕건이 수행한 통일전쟁의 수많은 전투 중에 하나가 일모산성 전투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려면 먼저 일모산성(一牟山城)은 어떤 곳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서 일모산성은 충북 청원군 문의면에 있는 양성산성과 동일한 곳이라는 두 편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⁶⁾ 이를 적극 참고하면서 일모산성의 역사적, 지리적 자리매김을 찾아 보고자 한다. 군현의 치소는 곧 군현의 명칭을 가진 성(城)이라고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일모산군(一牟山郡)이라는 명칭이 주목된다.

일모산군은 각종 지리지에 등장하고 있다. 『삼국사기』에서 “본래 백제의

6)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淸原 壤城山城』(중원문화연구총서 제23책), 2001;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淸原 壤城山城 圓池 發掘調査 報告書』(중원문화연구총서 제49책), 2005.

일모산군⁷⁾이라 한 이후, 『고려사』⁸⁾, 『세종장헌대왕실록』⁹⁾, 『신증동국여지승람』¹⁰⁾, 『여지도서』¹¹⁾ 등의 역대 지리지들이 대부분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김정호의 『대동지지』에서는 “본래 신라의 일모산”이라 하였다.¹²⁾ 이처럼 일모산군은 백제 또는 신라의 영역으로 기술되어 있다.¹³⁾ 따라서 명확히 어느 국가의 영역이었는지 애매한 면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양국의 접경 지역이었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신라가 일모산성을 처음 축성했다고 하는 기록은 자비마립간 17년(474)에 나타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① 일모·사시·광석·답달·구례·좌라 등의 성을 쌓았다.

② 가을 7월에 고구려왕 거륜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했다. 백제왕 경이 아들 문주를 보내 구원을 청하였다. 왕은 군사를 보내어 구원토록 했는데, (구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백제가 이미 함락되었고, 경도 또한 해를 입었다.¹⁴⁾

위 내용은 474년에 있었던 일들이다. 내용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가)-①’은 몇 월에 있었던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라가 6군데에 성을 쌓고 있다. 그 중에서 일모(一牟)만이 일모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나머지는 그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 ‘가)-②’는 가을 7월에 일어난 일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연도에 약간의 오차가 있다. ‘가)-②’는 유명한 전투

7) 『삼국사기』 권36, 잡지5, 지리3, 신라 웅주 연산군·권37, 잡지6, 지리4, 백제 웅천주.

8)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청주목 연산군.

9) 『세종장헌대왕실록』 지리지 권149, 충청도 청주목 문의현.

1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5, 충청도 문의현 건치연혁.

11) 『여지도서』 충청도 문의현 건치연혁.

12) 『대동지지』 권6, 충청도 문의 연혁.

13) 일모산군의 각종 지리지에 대한 검토는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앞의 『淸原 壤城山城』, 2001, 19~34쪽’ 참고.

14)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자비마립간 17년, “築一牟·沙尸·廣石·沓達·仇禮·坐羅等城 秋七月 高句麗王巨連親率兵 攻百濟 百濟王慶 遣子文周求援 王出兵救之 未至 百濟已陷 慶亦被害”.

로서 고구려 장수왕(거린)이 백제를 공격하여 개로왕(경)을 살해하였다.

이 전투에 관한 내용은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와 백제본기에 보다 자세히 실려 있다. 고구려본기에는 장수왕 63년(475) 9월조에 있고, 백제본기에도 개로왕 21년(475) 9월조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가)-②’는 474년 7월이 아닌 475년 9월에 일어난 전투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⁵⁾ 고구려와 백제는 당사자이고 연월이 일치하므로 그 시기가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는 목격자이면서 제3자이기에 이 같이 1년의 오류가 발생했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자비마립간 17년조에 있는 일모산성 축성 기사도 1년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축성 기사의 연도는 맞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전투 기사만 오류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록상 이러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 일 뿐이다. 실제 이보다 앞서 백제가 축성했을 수도 있다. 일모산성의 첫 축성 시기는 475년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474년일지 그보다 앞서 백제가 축성했을지 여부는 보다 세세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해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일모산성의 현재 위치를 찾아보자. 일모산군은 신라 경덕왕이 연산군(燕山郡)으로 그 이름을 고쳤다. 그리고 거느리는 현은 둘인데 연기현(燕岐縣)과 매곡현(昧谷縣)이었다.¹⁶⁾ 신라 연산군은 고려에서도 연산군이라 했으며 청주목(淸州牧)에 소속시켰다. 명종 2년(1172)에 감무(監務)를 두었으며, 고종 46년(1259)에 위사공신(衛社功臣) 박희실(朴希實)의 내향이라는 이유로 문의현(文義縣)으로 승격시켜 현령(縣令)을 두었다. 충렬왕 때에는 가림현(嘉林縣)에 병합되었다가 얼마 후에 복구하였다.¹⁷⁾ 조선시대에 와서도 그대로 문의현이라 하였다.¹⁸⁾ 그렇다면 백제의 일모산군이 신라에서는 연산군으로 불리었으며 고려 초에도 연산군으로 불리었음을 알 수 있다. 연산군은 연산진(燕山鎭)이라는 이름으로도 나타난다.¹⁹⁾

15) 이강래 역, 『삼국사기』 I, 한길사, 1998, 111쪽 주14 참고.

16) 『삼국사기』 권36, 잡지5, 지리3, 신라 용주 연산군.

17)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청주목 연산군.

1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5, 충청도 문의현 건치연혁.

19)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을유 8년 10월.

즉, 일모산성이 있는 군현의 이름이 일모산군, 연산군, 문의현 등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변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 통일전쟁기 일모산성은 연산군(연산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문의현의 ‘문의’는 현재 충북 청원군 문의면에 그 이름이 남아 있다. 『대동지지』의 문의현 성지조(城池條)에 의하면 “양성(壤城)은 신라 자비왕 17년에 축성되었다”고 한다. 축성년도가 사료 ‘가’-①과 같으므로 일모산성과 양성은 같은 성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문의면에 양성산성(壤城山城)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양성산성이 양성이고 일모산성인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세종장헌대왕실록』 지리지, 문의현조의 내용은 이러하다. “문의현의 양성산에서 봄 가을에 소재관(所在官)이 제사를 지낸다. 태산석성(兌山石城)이 문의현 서쪽 4리에 있다. 성 안에 우물이 하나가 있는데 겨울 여름에도 마르지 않는다.” 이후의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 문의현조에는 이렇다. 산천조에 “양성산 : 현 서쪽 4리에 있다.” 고적조에 “연산진(燕山鎭) : 고려 태조가 유금필(庾黔弼)로 하여금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을 삼아 (후) 백제 연산진을 공격하여 장군(將軍) 길환(吉喚)을 죽였다. 양성산성 : 돌로 쌓았으며, … 가운데에 원지(圓池)가 있는데 대지(大池)라 부른다”라고 되어 있다.

결국 태산과 양성산은 현의 서쪽 4리인 같은 방위에 있는 동일한 산의 다른 이름 표기로 여겨진다.²⁰⁾ 필자가 답사해보니 문의현의 객사로 추정되는 문산관(文山館)은 현재 문의문화재단지 안에 있지만 원래 대청호 속으로 수몰된 옛 문의국민학교(문의초등학교) 교무실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 교무실 즉 문산관이 원래 있던 곳에서 대략 서쪽 4리에 양성산성이 있다. 양성산성을 토박이들은 성터라고 불렀다. 성터 안에는 샘(새암)이 있었는데 일대의 형상이 지리지에 보이는 동그란 형태의 대지(大池)와 비슷하였다.²¹⁾ 필자는 이 대지(원지)를 사진으로 담아 보았다.

20)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앞의 『淸原 壤城山城』, 2001, 28~29쪽.

21) 제보자 : 2012년 2월 10일.

박성규(남 1954년생, 충북 청원군 문의면 문산리 토박이인데 타지에 나가 살다가 최근에 문의면 미천리에 정착), 양성산성 등산로에서 구술.

〈사진1. 양성산성 원경(남동쪽에서 촬영)〉 〈사진2. 양성산성 내에 있는 대지(동쪽에서)〉²²⁾



그리고 선행 지표조사에 의하면 성의 표면에서 가장 많이 수습된 것들은 경질의 대옹(大甕) 파편들인데, 이는 9세기 이후의 보편적인 기종이라고 한다.²³⁾ 즉 고려 통일전쟁기에 이성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와 각종 지리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현장답사를 해보니 일모산성은 현재의 양성산성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연산진과 양성산성도 동일한 곳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문산리에 있는 해발 297m · 287m · 246.2m의 봉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양성산성은 석축으로 된 테피식 산성이며 그 둘레는 약 985m로 조사되었다.²⁴⁾

다음은 일모산성의 주변상황을 살펴볼 차례이다. 이 성의 주변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성터가 상당히 조밀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일모산성을 포함하여 모두 34개의 성이 산재해 있다고 조사되었다. 34개 성의 사용시기가 모두 고려 통일전쟁기와 겹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은 연관이

박씨할머니(이름 밝히기를 꺼려함, 77세) 외 13명의 할머니, 문의면 미천3구 경로당에서 구술.

* 필자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 양성산성 안에는 동그란 형태(圓池)의 큰 못(大池)이 있는데, 물이 마른 채로 윤곽만 뚜렷이 남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앞의 『清原 壤城山城 圓池 發掘調査 報告書』, 2005'가 발간되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본고에서 '토박이'는 현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2) 〈사진1〉과 〈사진2〉 촬영일자 : 2012년 2월 10일.

23)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앞의 『清原 壤城山城』, 2001, 264~265쪽.

24) 양성산성의 전체 둘레는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위의 『清原 壤城山城』, 2001, 17쪽과 44쪽' 참고.

있지 않을까 추정해 본다. 이 일대에 이렇게 많은 성이 있었던 이유는 앞선 시기에 신라와 백제가 국경을 마주 대고 치열하게 다투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곳이 비슷하게도 고려 통일전쟁기에 고려와 후백제가 각축을 벌였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성들이 분포하게 되었을 것이다.²⁵⁾

일모산성은 지리적으로 청주에서 매곡산성(충북 보은군 회인면)과 삼년산성(보은군 보은읍)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의 길목을 관장할 수 있는 곳이다. 일모산성에 오르면 일대 조망권이 확보된다. 또한 상당히 견고한 성곽으로서 쉬 함락시키기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었다. 일모산성이 있는 양성산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 급경사를 가지고 있고 큰 못(大池)이 있어서 오랜 향전이 가능한 곳이었다. 또한 현재는 대청호로 변해있지만 남쪽에 흐르는 천이 금강으로 이어지므로 공주·부여 등으로 연결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요컨대 일모산성(연산진)은 현재 충북 청원군 문의면 양성산에 있는 양성산성과 같은 곳이고, 군사적·지리적으로 중요한 거점이었다. 앞선 시기의 신라와 백제, 고려 통일전쟁기의 고려와 후백제의 접경지역중에 하나가 일모산성이었다.

3. 공직의 고려 귀부와 일모산성

고려 통일전쟁기에 충청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매곡산성(昧谷山城)의 성주(城主) 공직(龔直)이 있었다. 매곡산성의 연혁을 살펴보면, 백제 미곡현(未谷縣)이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매곡현(昧谷縣)으로 이름이 바뀌어 연산군(일모산성)의 영현이 되었다. 그 후 고려 태조 23년

25)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위의 『淸原 壤城山城』, 2001, 267쪽의 '청원 양성산성 주변 성곽 분포도'와 275~277쪽 참고.

(940)에 회인현(懷仁縣)으로 고쳤다.²⁶⁾ 회인현의 '회인'은 현재 충북 보은군 회인면에 그 이름이 남아 있다.²⁷⁾ 매곡산성도 또한 현재 회인면 부수리 산 443번지의 해발 186.5m의 작은 산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성은 여러 지리지에 매곡산(昧谷山)에 있는 매곡성(昧谷城), 고성(古城), 매곡산성(昧谷山城) 등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이 성의 이름은 매곡산성이라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²⁸⁾ 공직이 웅거했을 당시에 매곡현의 중심은 그 이름으로 보아 매곡산성이었을 것이다.

매곡산성은 일모산성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서로의 거리가 가까웠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문의현조에 동쪽은 회인현과의 경계까지 11리라 했고, 같은 책 회인현조에는 서쪽으로 문의현 경계까지 16리라 했다. 합하면 두 현의 거리는 28리이다. 따라서 일모산성과 매곡산성은 약 30리 이내의 거리일 정도로 가까운 곳이었다.²⁹⁾

필자는 매곡산성을 답사해 보았다. 매곡산성은 현 회인면 소재지인 중앙리에서 회인천 위에 놓인 작은 콘크리트 다리인 부수교를 건너면 맞닥뜨린다. 주변에 농경지가 있는 평지의 가운데에 마치 볼록하게 솟은 형상이다. 주변 농경지는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니었다. 이 성은 평면상 서쪽이 잘라진 반달형의 테피식 산성이다. 석축으로 된 성의 둘레는 약 538m이고 성벽의

26) 『세종장헌대왕실록』 지리지 권149, 충청도 청주목 회인현 : 『대동지지』 권6, 충청도 회인 연혁.

27) 보은군 '회북면'이 2007년 10월 1일에 보은군 '회인면'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충북 보은군 회인면 홈페이지 참고).

28)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報恩 昧谷山城 地表調査 報告書』(중원문화연구원총서 제2책), 1998, 21~23쪽 참고. 본고에서 언급하는 주요 성들은 일모산성, 매곡산성, 삼년산성 등인데 이들 모두가 위치하고 있는 특징과 지리지 등에 등장하는 명칭 등을 참고해 볼 때 00산성으로 표기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된다.

29) 2012년 2월 23일 답사 : 우중철의 제보에 의하면, 문의면 소재지 → 괴곡리(괴실, 돌깡) → 마동리 → 회인면 소재지까지 걸어서 약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약 30리 길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마동에서 문의까지는 갈 수 있으나 마동에서 회인은 왕래가 없어서 길이 끊겼다고 한다.

제보자 : 우중철(남 68세, 충북 청원군 문의면 마동리, 마동리 토박이, 前이장), 자택에서 구술.

높이는 6m나 혹은 그 이상이다.³⁰⁾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축조하였기에 서벽이 높고 다른 쪽은 낮았다. 특히 서벽은 자연지형까지 더해져 수십m의 낭떠러지처럼 되어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곳이다. 그리고 회인천이 중앙리와 부수리의 경계가 되면서 북에서 남으로 흘러 대청호로 흘러 들어간다. 이 회인천이 마치 매곡산성의 해자 역할을 하면서 서벽 아래로 흐르다 남쪽을 약간 휘감아 흘러 나간다. 처음 축성할 적에 이러한 자연조건을 적극 이용했을 것이다. 성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무진 군사용이라는 인상이 보인다.³¹⁾

이 성의 초축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매곡산성의 내부에서 발견되는 유물의 파편들이 5세기 이후 전시대에 걸쳐 있다는 선행연구가 있다.³²⁾ 따라서 이 성은 적어도 공직이 활동하던 시기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추정된다. 그런데 매곡산성은 앞으로 언급할 공직의 명성에 비해 그 규모가 좀 작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생겼다. 그런 점에서 성의 동쪽인 안모산, 바깥모산이라는 마을에 있는 구렁이 마치 매곡산성의 외부 나성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참고 된다.³³⁾ 매곡산성은 공직의 명성에 걸맞으면 주변에 방어용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 몇 개의 부속 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매곡산성은 일모산성과 삼년산성의 중간에 있다.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일모산성, 매곡산성, 삼년산성이 나란히 있는 꼴이다. 신라 자비마립간 13년(470)에 쌓은 삼년산성³⁴⁾이 매우 견고한 성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삼년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산봉우리는 오정산이며 현재 그 주소는 충북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 산 1-1번지 일원이다. 이 성은 사방관측이 가능한

30) 성의 둘레와 성벽의 높이는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앞의 『報恩 昧谷山城 地表調査報告書』, 1998, 26쪽' 참고.

31) 2012년 2월 23일 답사 : 필자가 매곡산성을 답사해 보니 성을 한 바퀴 도는데 15분 이내의 시간이면 충분하였다. 만약 초목의 방해를 안 받는다면 10분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토박이인 허세량은 매곡산성을 '에미산'이라고 말해주었다.

제보자 : 허세량(남 40세, 충북 보은군 회인면 부수2리), 매곡산성 인근 밭에서 구술.

32) 성주탁·차용걸, 『百濟未谷縣과 昧谷山城의 歷史地理的 管見』 『삼불 김원룡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II, 일지사, 1987, 606쪽.

33) 위의 글.

34)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자비마립간 13년.

지형을 이용하여 쌓은 포곡식 산성이다. 석축으로 된 성의 둘레는 약 1.7km이다.³⁵⁾ 경우에 따라서 삼년산성의 방과계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곳이 매곡산성이었다. 청주에서 매곡산성에 도달하려면 겹겹이 가로막고 있는 피반령(皮盤嶺)을 통과하여야만 한다.

이 같은 지형 조건은 이승소(李承召)의 시에 잘 나타나 있다. “거듭된 산 등성이와 겹겹의 고개 멀리 서로 이어졌고, 길은 양(羊)의 창자처럼 둘러져 말이 나아가지 못하네”하였다.³⁶⁾ 매곡산성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농경지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 그러면서 이곳에 도달하려면 주변의 산과 고개를 넘어와야만 했다. 특히 북쪽의 청주에서 오려면 양의 창자처럼 꼬불 꼬불하면서 말이 넘기도 힘든 피반령을 넘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한 지형에 방어 병력이 있어야 방어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이다. 적이 넘어 오는데 군사적 저항이 없다면 험준한 지형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매곡산성이 적의 침공에 잘 대처하려면 일대에 부속 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한편 매곡산성의 남쪽(실제는 남동쪽)에 있는 노성산(老聖山)에서는 철이 생산되었다.³⁷⁾ 노성산은 노성산(老城山)으로도 표기되며 지도에서 쉽게 찾아진다. 이곳에 철이 언제부터 생산되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매곡산성 주변의 농경지는 규모가 크지는 않아 보였다. 그리고 이곳은 교역을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었다. 따라서 공직이 일정한 힘을 가지려면 바로 철산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다. 노성산의 철은 공직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전쟁의 시기에 무기 제작과 연결되는 철 생산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35) (사)한국성곽학회, 『삼년산성』, 충청북도, 2008, 69~71쪽 참고.

2012년 2월 23일 답사 : 필자가 삼년산성을 답사해 보니 시계 반대방향으로 성을 한 바퀴 도는데 40분 정도 걸렸다. 성의 곳곳이 사방관측하기에 유리하였으며, 서쪽에는 너른 농경지와 보은 읍내가 자리 잡고 있어서 당시에 식량자원은 풍부했을 것이다.

3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6, 충청도 회인현, 형승, “重岡復嶺速相連 路繞羊腸馬不前”.

37) 『세종장헌대왕실록』 지리지 권149, 충청도 청주목 회인현 토산 : 성주탁·차용걸, 앞의 「百濟未谷縣과 昧谷山城의 歷史地理的 管見」, 1987, 608~609쪽.

이러한 매곡산성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가 공직이었다. 그는 『고려사』 열전에 기록이 남아 있다.

나) - 공직은 연산 매곡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용감하고 지략이 있었다. 신라 말에 본 읍의 장군이 되었다. 당시 바야흐로 난리(亂離)가 나서 드디어 (후) 백제를 섬기게 되었고 견훤의 심복이 되었다.³⁸⁾

신라 연산군이 거느리는 현은 둘인데 연기현과 매곡현이었다고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 매곡현에서 공직은 신라 말에 장군이 되었다. 신라 말의 진성여왕 이후에 지방의 여러 곳이 중앙에 반발하여 독자적인 길을 걸으면서 신라는 멸망의 길로 내달리기 시작하였다. 어지러운 시기에 백성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지역세력에 의탁하였다. 지역세력은 해당 지역에서 성을 중심으로 웅거하였다. 이러한 지역세력들이 이 시기 사료에 성주 또는 장군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공직도 바로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였다. 매곡산성의 성주이자 장군이 공직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감하고 지략이 있었다고 하니 아마도 문(文)보다는 무적(武的) 능력이 뛰어났던 모양이다.³⁹⁾

공직은 신라의 백성으로 태어나 매곡산성을 중심으로 자립하다가 바야흐로 난리가 나서 드디어 백제, 즉 후백제를 섬기게 되어 견훤의 심복이 되었다. 여기서 난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먼저 두루뭉술하게 신라 말의 혼탁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다음은 918년 6월에 있었던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즉위한 사건일 수 있다. 세 번째 가능성은 공직의 이름이 거론되는 임춘길의 모반사건이다.

사료 나)의 내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간단히 중요부분을 설명하면서 전개되고 있다. 맨 먼저 공직의 태어난 고향을 언급하고 어릴 적 내용이 나온다. 다음은 공직이 신라 말에 매곡산성의 장군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38) 『고려사』 권92, 열전5, 공직, “龔直 燕山昧谷人 自幼有勇略 新羅末爲本邑將軍 時方亂離 遂事百濟 爲甄萱腹心”.

39) 한편 공직의 태어난 해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고려가 통일을 완수하는 것을 보고서 태조 22년(939)에 생을 마감하였다.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22년 3월.

바야흐로 난리가 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이 장군이 되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난리는 명료해진다. 왕건이 즉위한 초창기에 모반사건이 몇 개가 발생하였다. 그 중에 임춘길(林春吉)이 있었다.

다) - 또 순군리 임춘길이란 자는 청주(靑州, 淸州) 사람인데, 청주 사람 배충규, 계천 사람 강길·아차, 매곡 사람 경종(景踪)과 함께 반역을 음모하고 청주로 도망쳐 돌아가려 했는데 복지겸이 알아버렸다. 태조가 사람을 시켜 체포하여 신문하니 모두 다 복죄하였다. 모두 금고(禁錮)하도록 영을 내렸으나 오직 배충규만은 음모가 누설되었음을 알고 도망갔다. 이에 그 일당을 전부 죽이고자 했으나 청주 사람 현륜이 아뢰기를, “경종의 누이가 바로 매곡 성주 공직의 처입니다. 그 성은 대단히 견고해서 함락시키기 곤란하고 또 적 경계에 인접되어 있으므로 만약 경종을 죽이면 공직이 반드시 배반할 것이니 용서해서 회유하는 것보다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태조가 이를 좇으려 하였으나 마군대장군 염상(廉湘)이 나아와서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경종이 일찍이 마군 기달에게 말하기를, ‘누이의 어린 아들이 지금 서울에 있는데 그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이 견디지 못하겠고 게다가 시국을 보니 어지러워서 반드시 모여 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으니 기회를 엿보다가 그 애를 데리고 도망쳐 돌아가야 하겠다’라고 하였으니 경종이 지금 모반함에 과연 증험(證驗)했나이다”라고 하였다. 태조가 크게 깨닫고 그를 죽이게 하였다.⁴⁰⁾

이상은 태조 즉위년(918) 9월에 일어난 임춘길의 모반⁴¹⁾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모반에 매곡사람 경종이 포함되어서 태조가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그러자 매곡의 북쪽에 있는 청주사람 현륜이 태조에게 경종은 매곡산성의

40) 『고려사』 권127, 열전40, 반역1, 환선길 부(附) 임춘길, “又尙軍吏林春吉者靑州人 與州人裴憲規 季川人康吉』阿次 昧谷人景踪 謀反欲逃歸靑州 智謙以聞 太祖使人執訊之 皆服 並令禁錮 唯憲規知謀洩乃逃 於是欲盡誅其黨 靑州人玄律奏 景踪姊乃昧谷城主龔直妻也 其城甚固難以攻拔 且隣賊境 若或誅踪 龔直必反 不如有以懷之 太祖欲從之 馬軍大將軍廉湘進曰 臣聞景踪嘗語馬軍箕達曰 姊之幼子今在京師 思其離散 不堪傷情 況觀時事 亂靡有定會當伺隙與之逃歸 踪謀今果驗矣 太祖大悟便令誅之”.

41) 『고려사』 권1, 세기1, 태조1, 원년 9월.

성주인 공직의 처남이므로 공직의 반발을 우려해 회유하자고 건의하였다. 하지만 마군대장군 염상은 경종을 살려두면 서울(京師)에 있는 공직의 어린 아들(幼子)을 데리고 도망갈 가능성을 태조에게 말하였다. 결국 태조는 경종을 죽이게 하였다. 이때 공직의 어린 아들도 경종과 같이 처형당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료 다)에 나오는 서울을 철원으로 보는 견해⁴²⁾와 전주로 보는 견해⁴³⁾가 있다. 태조 왕건이 즉위한 918년까지는 아직 수도가 철원이었다. 임춘길의 모반사건에 연루된 경종은 사건 당시 철원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공직의 어린 아들이 질자(質子)로 와있던 서울은 철원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철원에 있는 경종이 전주에 가서 조카를 데리고 도망쳐 돌아가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신라 말의 어지러운 시기에 공직은 매곡산성을 중심으로 자립하였다. 그는 성주 또는 장군을 자칭하였다.⁴⁴⁾ 그러나 점차 견훤과 궁예 같은 좀 더 큰 세력들이 나라를 세우며 확장해오자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세력은 그 입지가 줄어들었다. 특히 공직은 양국의 접경지역에 응거하고 있었던 까닭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는 궁예 쪽을 선택하였다. 그러다가 왕건이 즉위하자 이에 반발한 모반 사건이 여럿 발생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모반을 일으킨 자 중에서 임춘길이 있었는데 여기에 동조한 것이 바로 공직의 처남 경종이었다.

그러므로 사료 나)에서 말하는 난리는 왕건의 즉위 직후에 발생한 경종이 연관된 모반 사건이라고 판단된다. 공직은 경종이 모반에 연루되기 전까지는 왕건과 표면상 우호적이었을 것이다. 그의 어린 아들이 철원에 있었으므로 적어도 표면상 우호적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한 상황이다.

42) 김갑동, 『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 研究』,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 研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32~33쪽.

43) 신호철, 「新羅末·高麗初 昧谷城(懷仁)將軍 龔直 - 지방호족 존재양태의 일단 -」 『湖西文化研究』 10,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92, 18쪽.

44) 위의 글, 14~15쪽.

하지만 일족의 죽음은 더 이상 그로 하여금 왕건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모반의 화가 공직에게까지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생존과 왕건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하여 주군(主君)을 견훤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해서 공직은 견훤의 심복으로 변신하였다. 그는 견훤에게 충성의 징표로서 큰아들 직달(直達), 작은아들 금서(金舒) 및 딸 하나를 전주에 질자(質子)로 두었다.⁴⁵⁾ 하지만 태조 13년(930)에 정세가 급변하였다. 태조 12년 12월부터 13년 정월까지 고려와 후백제가 고창군(경북 안동)에서 격돌하였다.⁴⁶⁾ 그동안 수세적 입장에 처했던 왕건이 고창군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경상지역에서 고려군이 확실한 우세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고려군의 형세가 점차 중부 이남에까지 미치고 있었다.⁴⁷⁾

양국의 접경지역에 있었던 공직은 큰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선택의 기로에 섰던 그는 다시 주군을 바꾸고 만다. 결국 태조 15년(932) 6월, 왕건에게 귀부하였던 것이다.⁴⁸⁾ 왕건은 그를 후대하였다. 공직을 대상(大相)으로 임명하고 백성군을 녹(祿)으로 주고 구마(廐馬) 세 필과 채백(彩帛)을 주었다. 아울러 그의 아들 함서(咸舒)를 좌윤(佐尹)으로 임명하고, 귀척(貴戚)인 정조(正朝) 준행(俊行)의 딸과 또 다른 아들 영서(英舒)를 혼인시켰다. 그러나 공직은 견훤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였다. 화가 난 견훤은 전주에 질자로 와 있던 공직의 자녀를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어 버렸다.⁴⁹⁾ 견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였다.

왕건의 입장에서는 공직을 다시 받아들일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매곡산성의 전략적 가치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일모산성, 매곡산성, 삼년산성 이렇게 세 성의 후백제 방어선을 왕건은 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45) 『고려사』 권92, 열전5, 공직.

46)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2년 12월·13년 정월.

47) 신호철, 앞의 『新羅末·高麗初 昧谷城(懷仁)將軍 龔直 -지방호족 존재양태의 일단-』, 1992, 21~22쪽 참고.

48)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5년 6월.

49) 『고려사』 권92, 열전5, 공직.

상태에서 공직이 귀부해 왔으니 왕건으로서는 당연히 환영하였다. 왕건은 공직이 비록 즉위 초의 모반 사건에 그의 처남이 연루되고 또한 배반하여 후백제로 돌아섰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다.

공직의 매곡산성과 가까운 곳이 일모산성이고, 매곡산성은 그 지정학적 특성상 십 수 년을 이웃 일모산성과 함께 후백제의 최북단 전력을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직은 왕건이 취하고자 했던 일모산성의 내부 사정에 밝았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환영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일모산성의 '전력 · 성곽의 취약부분 · 군량미 수급문제 · 군사적 교통로 · 대고려 방어망 · 후백제 지원군과의 연결문제' 등등이 추정 가능한 공직이 왕건에게 가지고 갔을 고급정보였을 것이다. 더구나 공직은 일모산성을 공격하자고 왕건에게 청원까지 하였다.⁵⁰⁾

그리고 공직은 그 자신이 응거하고 있었던 매곡산성이 양국의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변심하는 것이 쉬웠던 측면도 있었다. 만약 고려 영역의 한 가운데에 있었거나 후백제 영역의 한 가운데 있었다면 주군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공직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매곡산성의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이용하였다. 공직의 항배를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공직의 항배〉

| 시기 | 공직의 소속 국가 | 전거 |
|--------------------------|-----------|---|
| 어느 때 ~ 918년 9월 | 태봉, 고려 |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원년 9월 ; 같은 책, 권127, 열전40, 반역1, 환선길 부 입춘길 ; 같은 책, 권92, 열전5, 공직. |
| 918년 9월 ~ 932년 6월 | 후백제 |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원년 9월 ; 같은 책, 권127, 열전40, 반역1, 환선길 부 입춘길 ; 같은 책, 권92, 열전5, 공직 ; 같은 책, 권2, 세가2, 태조2, 15년 6월. |
| 932년 6월~(939년 3월, 공직 사망) | 고려 |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5년 6월 · 22년 3월 ; 같은 책, 권92, 열전5, 공직. |

50) 위와 같음.

결국 공직의 귀부로 인하여 왕건은 일모산성을 공략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4. 일모산성전투의 전개과정

고려 통일전쟁기의 충청지역은 고려와 후백제의 접경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서 양국은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격돌하였다. 공직이 후백제 견훤의 심복이 된 918년 9월부터 다시 마음을 바꾸어 고려 태조 왕건의 품으로 들어온 932년 6월까지 양국의 현 충북지역에 해당하는 곳의 접경선은 비교적 뚜렷하였다. 후백제 견훤은 자신의 영역인 일모산성과 매곡산성 그리고 삼년산성을 횡으로 연결하여 마치 철옹성처럼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견훤의 이 선은 때에 따라서 대고려 공격선이기도 하였다.

이에 고려 태조 왕건은 전략적 가치가 높은 이 선을 뚫고자 노력하였으나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 이 지역의 지형도 후백제에게 유리하였다. 청주를 영역으로 삼고 있었던 고려가 남으로 내려오려면 꼬불꼬불한 피반령을 내려와야 했다. 왕건이 즉위했을 당시에 모두 6차례의 모반 사건이 터졌다. 그 모반 사건 대부분이 청주와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었다. 이를 잘 수습한 왕건은 청주를 자신의 영역으로 확고하게 다져놓았다.⁵¹⁾ 그 다음 남으로 내려오려고 하였다. 특히 일모산성을 공략하려고 힘을 쏟았는데 기록상 세 차례의 시도가 있었다.

태조 8년(925) 10월에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 유금필(庾黔弼)을 보내어 후백제의 연산진(燕山鎭)을 쳐서 장군(將軍) 길환(吉喚)을 죽였다.⁵²⁾ 연산진, 연산군, 일모산성은 같은 곳이었다. 이 연산진에서 유금필이 장군 길환을

51) 왕건의 즉위 초 모반 사건에 대해서는 '김명진, 『太祖王建의 충청지역 공략과 아산만 확보』 『역사와 담론』 51, 호서사학회, 2008, 15~19쪽 참고.

52)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을유 8년 10월.

죽었다고 했는데, 태조 11년(928) 정월에 왕건이 견훤에게 보낸 편지글에 “연산군 경계에서 길환을 군전(軍前)에서 참(斬)하였다”라는 내용⁵³⁾이 보인다. 이는 연산진, 즉 일모산성의 성주로 생각되는 장군 길환을 진영 앞에서 목 베었다고 읽혀진다. 따라서 유금필은 일모산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하고 길환을 죽이는 성과만 올렸던 것이다. 925년의 연산진전투는 곧 제1차 일모산성전투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유금필이 길환을 죽였는데도 일모산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이유로 몇 가지 추정되는 바가 있다. 먼저 일모산성 동쪽 가까이 있는 매곡산성의 성주 공직의 존재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삼년산성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즉 매곡산성과 삼년산성 쪽에서 후백제의 구원군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비록 길환은 죽었지만 길환의 가족 및 길환과 후백제를 추종하는 군사들이 일모산성 안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일모산성의 험한 지형도 한 이유가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때 유금필은 많은 수의 기병을 데리고 갔을 것이다. 그는 이 전투가 끝나고 바로 같은 달에 임존군(충남 예산)을 공격하여 3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또한 그는 역시 같은 달에 조물군에서도 활약을 하였다.⁵⁴⁾ 10월 한 달 동안에 세 군데서 전투를 치른 그 빠른 기동력과 임존군에서의 전과로 보아 유금필은 많은 수의 기병을 인솔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모산성 공략은 지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지답사를 해 보니 양성산은 높지는 않지만 산 아래에서 일모산성에 이르기까지 경사가 급해서 기병이 직접 손을 쓸 수가 없고, 반드시 말에서 내려 걸어서 성 아래까지 가야 되는 지형이었다.⁵⁵⁾

유금필은 후백제의 구원군이 오기 전에 일모산성을 짧은 시간 내에 공략해야만 했다. 그런데 일모산성 내에 잔존세력이 아직 버티고 있고 그 지형 또한 험해서 길환을 죽이는 데에만 만족하고 물러났을 것이다.

53)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무자 11년 정월, “燕山郡畔 斬吉奐於軍前”.

54)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을유 8년 10월.

55) 2012년 2월 10일 답사.

그 후 태조 10년(927) 9월에 왕건은 공산 동수전투(대구 팔공산)에서 견훤에게 대패하였다.⁵⁶⁾ 고려는 경상지역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 일 년 후인 태조 11년(928) 7월에도 왕건이 직접 출전하여 삼년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청주로 갔다. 그러자 후백제의 장군 김훤·애식·한장(金萱·哀式·漢丈) 등이 3천여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청주를 공격하였다. 이때 다행히 유금필이 탕정군(충남 아산)에서 구원하러왔다. 유금필이 후백제군과 싸워서 이를 패배시키고 추격하여 독기진(禿岐鎭)에 이르러 죽이고 사로잡은 것이 3백여 명이었다.⁵⁷⁾ 이 내용은 후백제의 손실이 훨씬 큰 것처럼 되어있으나 결과적으로 고려의 삼년산성 공격은 실패하였다. 삼년산성을 비롯한 황적인 후백제의 군전력선은 후백제의 방어선이자 공격선이었다. 삼년산성은 잘 알려졌듯이 군사적 기능이 뛰어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왕건은 일모·매곡·삼년산성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태조 13년(930)에 반전의 기회가 왕건에게 찾아왔다. 고창군전투(경북 안동)에서 왕건이 대승을 거두었던 것이다. 이 전투의 승리로 경상지역에서 고려는 후백제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이제 왕건은 충청지역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였다. 태조 13년(930) 8월에 충청지역의 새로운 군사적 거점인 천안도독부(충남 천안)를 설치하면서 준비를 다져갔다.⁵⁸⁾

그러자 태조 15년(932) 6월에 공직은 전체 판세의 흐름을 읽고서 왕건에게 귀부하였다. 그런데 공직은 일모산성과 삼년산성을 함께 데리고 고려로 귀부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이 두 지역이 공직의 힘에 휘둘리기 보다는 견훤에 의해 장악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두 지역은 역학관계상 매곡산성과 대등하거나 아니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공직과 행동을 같이 안했을 수도 있다. 특히 일모산성은 제1차 일모산성전투 시에 성주 길환의 죽음으로 인한 원한이 깊었기에 공직과 함께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려는 공직의 귀부로 인하여 일모산성과 삼년산성의 중간 요충지를

56)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9월.

57)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무차 11년 7월 : 『고려사』 권92, 열전5, 유금필.

58)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3년 8월.

확보하게 되었다. 후백제의 대고려 방어선이자 공격선의 한 가운데가 잘리게 된 형상이었다. 공직은 왕건에게 귀부하고서 후백제의 일모산성이 매곡산성을 침범하고 약탈하니, 일모산성을 공격해 달라고 청원하였다.⁵⁹⁾ 이는 왕건이 원하던 바였다. 공직은 자신의 변신으로 인하여 후백제로부터 보복을 받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왕건의 의중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마침내 공직의 귀부에 힘을 얻은 왕건은 한 달 후인 932년 7월에 제2차 일모산성 전투를 벌였다. 왕건이 직접 나서서 일모산성을 정벌하였다.⁶⁰⁾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다. 같은 해인 『고려사절요』 태조 15년조 글꼬리에 다시 일모산성을 공격하여 이를 격파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⁶¹⁾ 이것이 3번째 일모산성전투였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제3차 일모산성전투는 932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했을 것이다. 그 와중에 왕건의 신임을 받았던 최웅(崔凝)이 사망하였다. 최웅이 사망했을 때 왕건은 연산군에 있었다.⁶²⁾ 그런데 그때가 11월이었다.⁶³⁾ 따라서 제3차 일모산성전투는 11월 즈음에 일어났으며 왕건이 직접 수행하였다.

당시 일모산성의 성주가 누구였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1차 전투에서 성주로 추정되는 장군 길환이 사망하였다. 2·3차 전투 당시에 일모산성 성주는 앞에서 서술한 928년 전투에 참여했던 후백제의 장군 김훤·애식·한장 중에서 한 명이 아닐까한다. 일모산성 성주가 일모산성전투의 후백제군 지휘관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2·3차 일모산성전투는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었을까 궁금하다. 비록 전투의 자세한 모습이 기록에 남아 있지는 않지만 추론 가능한 상황을 설정해 보자. 전투에 앞서 왕건은 공직에게서 일모산성의 최근 제반사항을 보고 받았을 것이다. 먼저 청주쪽에서 출발한 왕건의 고려군은

59) 『고려사』 권92, 열전5, 공직.

60) 『고려사』 권2, 세기2, 태조2, 15년 7월.

61)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임진 15년, “是歲 復攻一牟山城 破之”.

62) 『고려사』 권92, 열전5, 최웅.

63)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임진 15년 11월.

일모산성의 북쪽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매곡산성의 공직이 고려로 귀부하였기 때문에 청주와 매곡산성 사이에 있는 험준한 피반령은 장애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반령을 통해서 고려군과 공직의 매곡산성은 서로 긴밀히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 공직은 매곡산성의 위치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모산성의 동쪽을 맡았을 것이다. 또한 매곡산성은 일모산성과 삼년산성의 중간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삼년산성의 후백제군이 함부로 구원군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일모산성의 서쪽은 천안도독부(충남 천안) 또는 탕정군(충남 아산)의 고려군이 공격하였을 것이다. 이는 앞에서 서술했듯이 928년 유금필의 군대가 탕정군에서 청주로 구원하러 왔었고, 930년에 천안도독부가 설치되었으므로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제 남아 있는 방향은 남쪽뿐이다. 남쪽은 현재 대청호 수몰지역이지만 당시에는 금강의 상류에 해당된다. 따라서 후백제의 지원군이 오는 데 장애가 되었을 것이고, 서쪽의 고려군과 동쪽의 공직이 남쪽에서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높았으리라 여겨진다.

아무튼 932년 7월의 2차 전투는 왕건이 직접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군은 실패하였다. 일모산성은 그만큼 견고했으며 성주의 방어능력도 뛰어났다. 고려군은 2차 전투에서 실패했지만 포위망은 풀지 않았을 것이다. 왕건은 겨울인 11월 즈음에 다시 일모산성을 공격하였다. 7월 이후에도 포위망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군의 연이은 공격이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일모산성은 지원군이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식량이 고갈되고 추위까지 겹치면서 결국 함락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처럼 일모산성을 두고 고려군과 후백제군은 모두 3차례 전투를 치렀다. 결국은 제3차 일모산성전투를 치루고 난 다음에 일모산성은 왕건의 수중에 들어왔다. 왕건은 공직의 귀부로 인하여 매곡산성을 고려에 복속시키게 되었고 그 서쪽에 있는 일모산성은 무력을 사용하여 함락시켰다. 여기에 공직이 큰 힘을 발휘했을 것이다. 세 차례 전투에서 처음은 유금필을 시켰으나 여의치 않자 두 번은 왕건 자신이 직접 수행하였다. 통일전쟁기에 매우 드문 경우였다. 그만큼 일모산성이 중요했던 증거가 된다. 이러한 세 차례

전투를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 2. 일모산성 전투의 시기별 분류〉

| 전투 명칭 | 시기 | 고려군 지휘관 | 후백제군 지휘관 | 결과 | 전거 |
|--------------------|---------------------|---------|-----------------------------|--|---|
| 제1차 일모산성전투 (연산진전투) | 태조 8년 (925) 10월 | 유금필 | 길환 | 유금필이 연산군 경계에서 길환을 군전(軍前)에서 참(斬)하였다. 그러나 일모산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함. | 『고려사절요』 권1, 태조 신성대왕 을유 8년 10월·무자 11년 정월; 『고려사』 권92, 열전5, 유금필. |
| 제2차 일모산성전투 | 태조 15년 (932) 7월 | 왕건 | 장군 김훤·애식·한장중에서 한 명일 것으로 추정. | 왕건이 직접 일모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실패. |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15년 7월; 같은 책, 권92, 열전5, 유금필. |
| 제3차 일모산성전투 | 태조 15년 (932) 11월 즈음 | 왕건 | 장군 김훤·애식·한장중에서 한 명일 것으로 추정. | 왕건이 직접 일모산성을 공격하여 성공. | 『고려사절요』 권1, 태조 신성대왕 임진 15년 11월과 글꼬리; 『고려사』 권 92, 열전5, 유금필·최응. |

다음은 일모산성전투를 전후하여 전투 현장 일대의 고려와 후백제의 접경선 변화에 대해서 약도를 그려보았다.

〈약도 1. 일모산성 일대의 고려와 후백제의 접경선 변화〉



앞에 약도에 의하면, 먼저 북쪽의 청주는 고려군의 중심영역이었다. 위도상 피반령 아래에 있는 3개의 성은 서쪽부터 ①일모산성, ②매곡산성, ③삼년산성이 횡으로 이어져 있는 모습이다. 이 3개성은 공직이 고려로 귀부하기 전인 932년 6월 이전에는 모두 후백제의 영역이었으며, 고려와 후백제의 접경선은 ㉠선처럼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직이 귀부한 932년 6월 이후부터 대략 그해 11월 즈음까지는 ②매곡산성이 마치 ①·③의 성 사이를 잘라낸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 이때의 양측 접경선은 ㉡선이다.

㉡선이 형성되고 나서 1달 후인 932년 7월에 제2차 일모산성전투가 벌어졌으나 왕건은 실패하였다. 연이어 같은 해 겨울인 11월 즈음에 제3차 일모산성전투가 벌어졌다. 결과는 왕건의 승리였으며 ㉢선이 형성되었다. 마치 고려가 후백제 영역을 향해 썩기를 박은 듯이 유리한 형상을 하게 되었다.⁶⁴⁾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왕건이 일모산성에 대해 집착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첫째, 지리적으로는 일모산성을 취하게 되면 금강을 따라서 공주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둘째, 일모산성을 취하게 되면 후백제의 군전력선을 절단하는 효과가 있었다. 물론 이러한 효과는 매곡산성과 삼년산성도 해당된다. 세 번째 이유는 삼년산성 대신에 일모산성을 택한 것이 아닌가한다. 삼년산성은 견고하기도 하지만 주변에 너른 들판이 있어서 자체 식량자원이 풍부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성들에 비해 공략하기 어려운 성이었다. 928년 삼년산성전투에서 왕건이 실패한 것은 좋은 본보기였다.

이제 매곡산성의 동쪽에 있는 삼년산성이 문제였다. 이 난공불락의 삼년산성을 공격하다 실패했던 왕건은 더 이상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 대신 고립화 작전을 구사했다고 추정된다. 왕건은 삼년산성을 동편에 잡아놓고 대신 운주(충남 홍성)를 치고자 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은 일모산성이 고려의 수중으로 넘어 온 뒤로 충청지역에서 후백제군의 움직임이 보이지

64) 당시 ㉠선과 ㉡선의 남쪽 하한을 정확히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그리 먼 거리는 아닐 것이다. 고려가 일모산성을 함락한 후에 바로 이어서 그 남쪽의 성들이 고려에 투항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않기 때문이다. 후백제 입장에서는 잘못 움직이면 삼년산성도 고려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며 숨을 고를 여유가 필요했을 것이다. 왕건은 이러한 후백제의 상황을 읽고 있었다. 충청지역에서 후백제가 숨죽이고 있을 때 왕건의 다음 수순이 펼쳐졌다.

결국 왕건은 일모산성을 함락시키고 2년이 지난 934년(태조 17) 9월의 운주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두었다. 이 운주전투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자세히 검토할 예정이다. 운주전투의 승리 후에 웅진이북(熊津以北)의 30여 성이 왕건에게 스스로 항복해 왔다.⁶⁵⁾ 견훤은 고창군전투에서 패하여 경상지역에서 힘을 상실하였으며, 운주전투에서 패하여 충청지역에서도 힘을 상실하고 말았다.

왕건에게 있어서 강력한 삼년산성을 고립시키고 후백제를 향해 고려의 군전력선을 전진시키게 만든 전투가 일모산성전투였다. 이어서 운주전투에서도 승리한 고려는 충청지역에서 후백제에 비해 절대 우위에 서게 되었다. 운주전투의 승리가 가능하도록 큰 밑받침이 된 전투가 바로 일모산성전투였다. 여기에 공작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5. 맺음글

이상 살펴본 바를 간단히 요약하여 맺음글로 삼고자 한다.

고려 통일전쟁기에 세 차례나 전투가 벌어질 정도로 태조 왕건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일모산성은 현 충북 청원군 문의면에 있는 양성산성이다. 이 성은 일대를 관찰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각 자료에 보이는 일모산성, 일모산군, 연산군, 연산진, 양성, 양성산성, 문의현은 같은 곳이었다. 일모산성은 고려와 후백제의 접경지역에 있었는데 전쟁 초반부터 후백제의 영역이었다.

65)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7년 9월.

일모산성의 동쪽에 있는 매곡산성은 현 충북 보은군 회인면에 있다. 신라 말에 매곡산성은 공직이 장군 또는 성주로 자칭하며 자립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궁예에게 복속되었다. 그 후 공직은 918년 6월에 왕건이 즉위하자 잠깐은 우호적인 관계였다. 그러나 918년 9월에 공직의 처남 경종이 모반 사건에 연루되면서 왕건과의 사이가 빗나가게 되었다. 결국 공직은 경종과 자신의 어린 아들이 처형당하자 고려를 배반하고 견훤에게 귀부하고 말았다.

후백제 견훤은 충청내륙에서 일모산성, 매곡산성, 삼년산성을 횡으로 연결하여 강력한 군전력선을 가지고 있었다. 이 선은 후백제의 대고려 방어선이자 공격선이었다. 왕건은 이 선을 뚫고자 노력하였다. 그 첫 목표는 일모산성이었다. 925년의 제1차 일모산성전투(연산진전투)에서는 유금필이 수행하였다. 그러나 성주 길환을 죽이는 성과만 올렸다. 928년에는 왕건이 직접 현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삼년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삼년산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왕건은 즉위하고 견훤과의 전쟁에서 대체로 초반 판세가 열세였다. 그러나 930년 1월에 고창군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역전하게 되었다. 같은 해 8월에 새로운 군사적 거점인 천안도독부를 설치하면서 후백제를 압박하였다. 이에 위기를 느낀 공직이 이번에는 견훤을 배반하고 왕건에게 귀부하였다.

공직의 귀부로 인하여 매곡산성이 고려의 수중에 들어오자, 왕건은 다시 일모산성을 공격하였다. 그는 932년 7월에 제2차 일모산성전투를 결행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왕건은 같은 해 11월 즈음에 제3차 일모산성전투를 결행하여 결국 성공하였다. 한 개의 성을 세 차례 공격한 것은 고려 통일전쟁기에 매우 드문 경우였다. 거기에 2차와 3차 전투는 왕건이 직접 정벌하였다. 그만큼 일모산성은 중요한 곳이었다. 왕건은 이러한 승리를 발판 삼아 934년 9월에는 운주전투(충남 홍성)를 벌이며 이 역시 성공하였다.

왕건에게 있어서 강력한 삼년산성을 고립시키고 후백제를 향해 고려의 군전력선을 전진시키게 만든 전투가 일모산성전투였다. 이어서 운주전투에서

승리한 고려는 충청지역에서 후백제에 비해 절대 우위에 서게 되었다. 운주전투의 승리가 가능하도록 큰 밑받침이 된 전투가 바로 일모산성전투였다. 여기에 공직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원고투고일 : 2012. 10. 1, 심사수정일 : 2012. 10. 1, 게재확정일 : 2012. 11. 30)

주제어 : 왕건, 견훤, 공직, 귀부, 일모산성, 매곡산성, 삼년산성, 일모산성 전투, 운주전투, 충청지역

<ABSTRACT>

The Battle of Ilmosanseong by Wang Geon and Gongjik's Role

Kim, Myeong-jin

Bordering Goryeo and Hubaekje, Ilmosanseong (Yangseongsanseong is now in Munui-myeon, Cheongwon-gun, Chungbuk) was at a strategic location that initially belonged to Hubaekje. At the end of the Shilla Kingdom, Gongjik at Maegoksanseong was self-reliant and subjugated to Gung Ye. When Wang Geon was crowned king in June 918, Gongjik maintained friendly relations with him for a while. But the two drifted apart because of the rebellion in September 918 involving Kyeongjong, Gongjik's brother-in-law. When Gongjik's young son and Kyeongjong were executed, Gongjik betrayed Goryeo, subjugating himself to Gyeon Hwon.

Hubaekje's strong military force was backed up by Ilmosanseong, Maegoksanseong and Samyeonsanseong in the Chungcheong region that served as a horizontal line of defense and attack against Goryeo. Wang Geon had to break through this line, so Ilmosanseong was his first target. In 925, Yu Geum-pil initiated attacks on the fortress (Yeosanjin Battle), killing only Kil-hwan, the Castellan. In 928, Wang Geon personally attacked Samyeonsangseong only to fail.

However, he won the Battle of Gochanggun in January 930, establishing Cheonan-bu as a new military base. Sensing a crisis, Gongjik betrayed Gyeon Hwon and subjugated himself to Wang Geon.

With Maegoksanseong under his jurisdiction, Wang Geon launched a second attack on Ilmosanseong in July 932 only to fail. Around November 932, the third attack made him victorious. It was rare to attack a single fortress three times in the period of unification wars. In September 934, Wang Geon achieved victory at the Battle of Unju.

With victory at the Battle of Ilmosanseong, Wang Geon isolated the

impregnable Samyeonsanseong and deployed his troops forward into Hubaekje. Much of the credit for that victory obviously belonged to Gongjŏk.

Key Words : Wang Geon, Gyeon Hwon, Gongjŏk, Subjugation, Ilmosanseong, Maegoksanseong, Samyeonsanseong, Battle of Ilmosanseong, Battle of Unju, Chungcheong region